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체육단체 36곳 투표권 상실 논란

3월 14일 기준 5명 이상 선수 등록 안된 종목단체들 투표권 행사 못해 '선거인수 배정 이의 신청서' 제출 등 반발... 선관위에 참정권 보장 촉구 "학사일정·선수 이동 등 현실 무시"... 시체육회 "절차상 아무 문제 없어"

광주시체육회장 선거(5월13일)에서 체육단체 60곳 가운데 36곳이 투표권을 상실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장 선거인수 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김병희)은 13일 보도자료에서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 종목단체들이 투표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체육단체의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체육회와 광주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에서 5월13일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의 기준을 '광주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60일 전으로 확정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선거인 구성은 5명 이상 선

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회장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돼 투표권을 행사한다. 실제 광주시체육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3월14일 기준 초·중·고·대학 일반 선수 등록 현황대로라면 체육회 정회원 63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다. 36개 종목단체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선거인 자격과 관련해 선관위 구성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 원칙도 위배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따른 선수등록기준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 주장했다. 선수 등록 기준일(3월14일)을 보궐선거 사유발생일(3월 19일·전임회장 사퇴일)과 선거관리규정

개정(3월 18일), 선관위 구성(3월 29일) 보다 앞서 정하는 건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선거규정을 적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수 등록은 통상 학사일정 및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월-5월 사이에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4일에는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여서 선거를 예측하고 선수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일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회장 선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상황에는 선거인이 되는 대의원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보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종목단체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유권해석과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등을 토대로 선관위에서 선거인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선거인 기준일을 변경할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선관위 결정대로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19일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복싱, 전국대회서 금 3개 등 메달 7개 수확

전남기술과학고·전남체중 선전

전남복싱이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청양에서 열린 2021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한 전남기술과학고와 전남체중 복싱팀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쓸어들었다. 화순 전남기술과학고에서는 남고부 -81kg급에 출전한 임형욱(3년)이 이한울(부산체고)을, -60kg급 박수인(3년)이 박수찬(대전고)을 각각 결승에서 판정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성현(2년)은 -91kg급 결승에서 신유승(계산공고)에 판정패해 은메달을, 서상화(3년)도 -69kg급 준결승에서 이주상(금오고)에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중학교도 금메달 행진에 동참했다. 남중부 -46kg급에 출전한 권민준(2년)이 한은혁(경기광주중)에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전남기술과학고 복싱팀.

이어 -38kg급 결승에 오른 김태수(2년)가 이승훈(대전기오중)에 패하며 은메달을, -42kg급 김현영(3년)은 동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골프 이지우

전국대회 개인전 3위

호남대학교 골프부(지도교수 박인혜) 이지우(2년·사진)가 최근 충남 태안군 솔라고CC에서 열린 '2021 전국대학골프대회'에서 합계 2인더파 142타(72타, 70타)로 여자 개인전 3위에 올랐다. 박인혜 지도교수는 "이지우는 학업과 운동, 자기관리 모두 성실하다. 어린 나이에도 250m의 파워풀한 드라이버샷과 유연하고 정교한 아이언샷을 모두 갖춘 선수"라며 "퍼팅 안정감만 더한다면 우승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배구 FA 최대어 이소영, 인삼공사 전격 이적

총액 6억5천만원에 3년 계약 인삼공사 단숨에 우승 후보로

여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인 이소영(27)이 GS칼텍스를 떠나 KGC인삼공사에서 새롭게 도전한다. KGC인삼공사는 이소영과 연봉과 옵션을 포함한 총보수 6억5000만원에 3년 계약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소영은 지난 시즌 옵션 없이 연봉 3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시즌 GS칼텍스의 여자부 최초 한국배구연맹(KOVO)컵 대회,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우승의 3관왕 달성에 앞장선 이소영은 KGC인삼공사의 우승 후보사로 변신한다. 검증된 이방인 발렌티나 디우프와의 재계약이 유력한 인삼공사는 공수에서 리그 정상급 기량을 보유한 이소영을 영입해 단숨에 다음 시즌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2012-2013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은 이소영은 신인상을 거머쥔 뒤 GS칼텍스의 간판선수로 9시즌을 뛰었다. '아기 용병'에서 '소영 선배'로 애칭이 바뀔 정도로 팀 내에서 그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2020-2021시즌엔 강소휘와 더불어 '쏘쏘 자매'를 형성하고 메레타 러츠와 함께 공포의 삼각팬대를 구축해 '어우홍(여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아성을 깨고 GS칼텍스에 트레블의 영광을 선사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대전을 연고로 한 KGC인삼공사의 새 식구가 된 이소영은 구단을 통해 "저



이소영

의 가치를 인정해준 KGC인삼공사에 감사드리다"며 "새 시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소영을 직접 만나 협상을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택 KGC인삼공사 감독은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V리그 최고의 공격수를 영입하게 됐다"며 "다음 시즌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KGC인삼공사는 GS칼텍스에 이소영 지난 시즌 연봉의 200%인 7억원과 보호선수 6명 이외의 선수 1명을 보상이거나 연봉의 300%인 10억5천 만원을 줄 수 있다. 시즌 후 5명이나 FA 자격을 획득한 바람에 협상에 애로를 겪은 GS칼텍스는 이소영을 제외한 강소휘, 한수지, 김유리, 한다혜와의 계약을 조만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후 FA 자격을 얻은 12명의 선수는 15일 오후 6시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싱크로나이즈 선수 '하나 같은 둘'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영국 런던의 클리슬드 레저 센터가 재개장함에 따라 13일 싱크로나이즈 수영선수들이 풀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더스트맨, 최면
3관	고질라 VS. 콩
4관	모탈 컴бат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자신아보, 최면
9관	노바디
7관	씨네커풀 미나리, 텅텅 테일러 솔저 스파이
8관	씨네커풀 자신아보, 비밀의 정원, 더 퍼터 퍼닛 버터 팔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해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2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